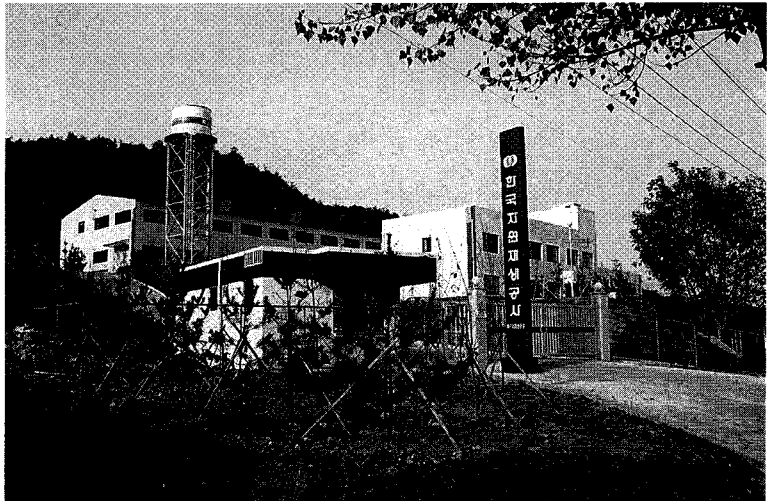


탐방

한국자원
재생공사

공시법 시행으로 폐기물 재활용 중추기관으로 발돋움



담양에 위치한 폐비닐
재생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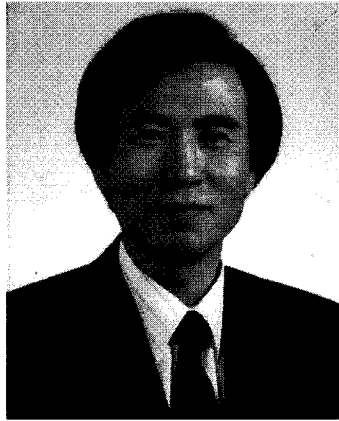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김창제)가 설립되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깨끗한 환경이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한다는 신념아래 1980년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새장을 열고 설립된 이래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비닐, 농약빈병과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해 왔다. 또한 89년 청주재생공장, 91년 안동재생공장, 93년 담양 재생공장을 준공하고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의 시행과 함께 단순 수집 및 공급 위주였던 기존의 수집기능을 조절, 10개의 지사를 권역별 4개본부로 통폐합하고 재활용 기술개발과 재생산업 육성지원, 재활용 시설투자 등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직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라고 홍보부 김호근 과장은 공사의 주업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난 4월 기능강화, 조직개편

지난 4월 김창제 사장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한국자원재생공사 조직 및 기능의 특징을 보면 ▲재활용품 분리의 일원화 실시로 수집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게 됨에 따라 과거 수집 위주로 편제된 10개 지사를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본부로 통합, 폐기물 재활용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또한 권역내 폐기물의 수집, 선별 마케팅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등 본부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임기제로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하여 재생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고 민간 재생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재활용 사업체에 대한 시설용자 및 기술개발비 지원 등 폐기물 관리기금 융자지원 업무 본격 실시 ▲산업체 폐기물 유통정보



한국자원재생공사 김창제 사장

제공 및 교환이용의 증대를 위하여 현재 홍보이사제를 변경, 기술이사를 상임이사로 두고 기술부, 조사연구실을 신설 ▲자원회수가 크고 환경기여도는 높으나 경제성이 불투명하여 민간 참여가 어려운 폐기물 재활용 분야를 집중개발, 재생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개발부를 신설하였으며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여 공사의 재생공장 및 민간 재생업체를 유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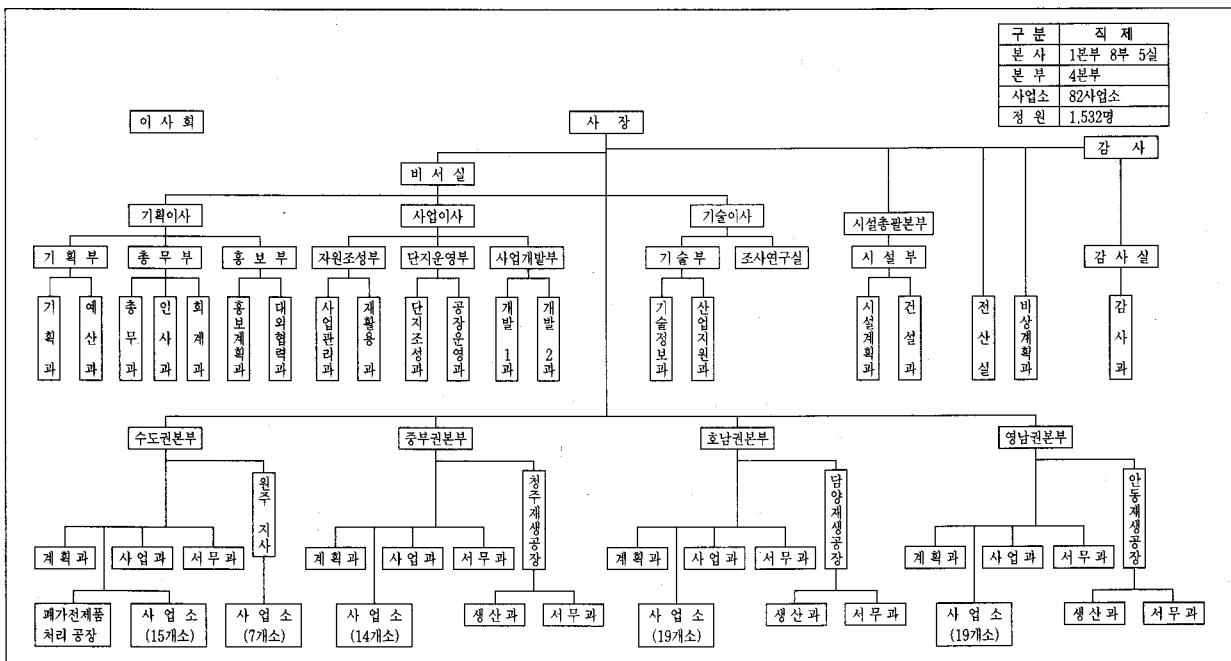
세업체의 입지난을 해소함은 물론 비축기지 설치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별, 압축, 보관, 비축으로 재활용품 수급조정 및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 운영부를 신설하였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공사법의 시행과 함께 국내 폐기물의 단순 수집업무에서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 중추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매입과 유무상 공급 ▲폐기물 재활용 설치, 운영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보급 등 폐기물 감량화 및 대국민 홍보와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업무 등 몇 가지를 주요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폐비닐 재생공장 연 1만5천톤 처리

민간 참여가 어려운 폐기물 재활용 분야를 집중 개발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하이텐 폐비닐 재생공장을 청

[표 1] 개편된 한국자원재생공사 기구표



탐방

한국자원 재생공사

주, 안동, 담양에 설치하여 연간 1만5천톤의 하이덴 폐비닐을 재생처리하여 중간원료를 생산하고 민간 재생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에서 농작물 재배시 멀칭용으로 사용된 후 버려진 하이덴 폐비닐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으로 수집하여 왔으나 민간재생 업체의 재생기술 부족과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하이덴 폐비닐의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남 담양 제3기 공장에 이어 수도권지역, 경기지역에 하이덴 폐비닐 재생공장 건설을 추진, 발전시킴으로써 국내 하이덴 폐비닐의 재생이용을 가능케하고 폐기물 자원화 연구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9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간 2만4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 선별기 등 자동화 시설을 갖춘 폐가전제품 파쇄처리 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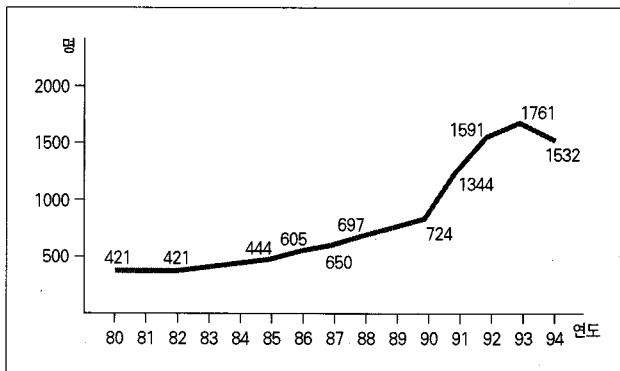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수집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압축, 가공처리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98년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6개권역에 총 비축물량 4만톤 규모의 재활용품 비축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비축기지의 운영으로 재생업체에 보다좋은 질의 원자재를 공급함은 물론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채산성을 향상시켜 재생산업 활성화와 재활용품의 수거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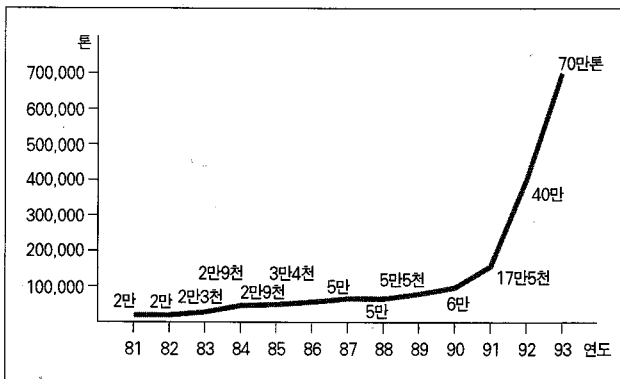
국내 재생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음을 감안,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재생업체에 보급하여 재생산업을 육성코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생제품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농업용 멀칭 폐비닐 재생공장 기계설비 정밀진단 ▲주요국가 및 폐기물 관리정책 비교분석 등이 있다.

(그림 1) 인력현황



(그림 2) 연도별 재활용 현황



폐기물관리기금 총 100억원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재활용 시설 설치비용을 용자지원하여 취약한 국내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4년도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기금 용자 지원 금액이 재활용 시설 설치 지원분야 80억원,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 20억원 등 총 100억원으로 책정, 본격적으로 폐기물관리기금 용자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교환이용 정보를 관련업체에 제공하고 교환상대를 알선함으로써 폐기물을 감량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 비용의 절감과 값싼 재생원료를 공급받게 하고 재활용으로 환경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간 폐기물유통정보센터에서는 폐기물의 교환이용 촉진 정보보급을 위하여 연 2회 폐기물 교환이용정보, 재생이용사례, 폐기물관련 통계 등을 수록한 컬러판 '재활용상품 정보지'를 연 2회 발간하여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계획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공사는 폐기물 재활용 업무외에도

매년 국제재생산업전시회를 열어 국내외 재생업체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기술개발과 시범실시 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에 대한 대국민홍보와 국내 재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19일부터 25일까지 전시됐던 제3회 국제재생산업전시회는 영부인의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총 4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었으며 대국민 홍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보존에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쓰레기분리 수거에서 재활용까지 국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호응이 적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최근 그 성과가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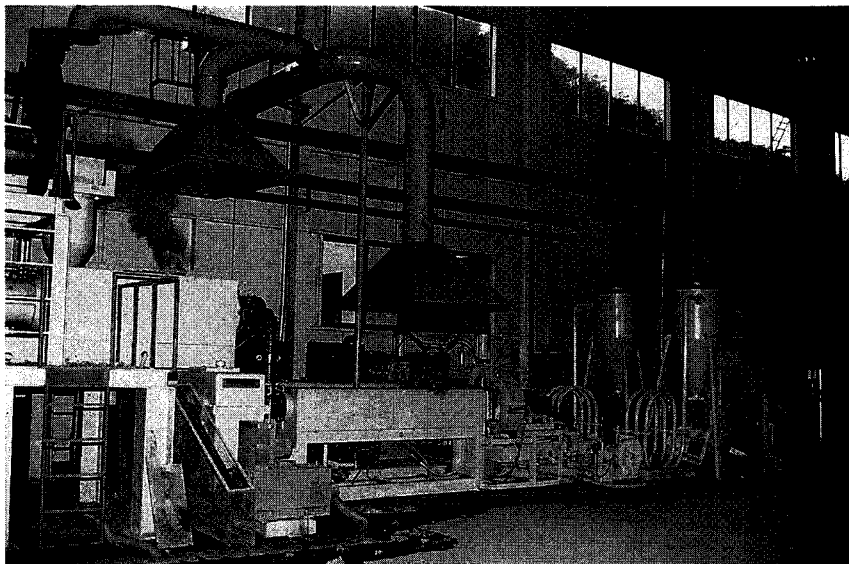
앞으로 공사는 대국민 홍보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계몽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환경보존 업무에 전국민 스승로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공사의 업무, 공익광고는 물

론 업무보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과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환경소식과 폐기물 재활용 소식을 신속히 전달,국민과 함께 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홍보과장은 밝혔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국민들의 호응을 적극 필요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사를 홍보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이제 명실공히 우리나라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중추기관이다. 좀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이선하 기자



폐비닐을 회수·재생시켜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